

호남 출신 의병장 이평국 3父子 등 36인 항일기록 발굴

경남 하동군 향토사학자 정부에 서훈신청 '감동' 출신지 별 주소 등 기록

일본군에 맞서 싸운 남원출신 항일의병장 이평국 3부자와 임기주(남원) 형제 등 호남출신 항일투사 36명의 활약상과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경남 하동군의 한 향토사학자가 108년 만에 발굴 지난 19일 정부에 서훈을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지리산전 우 리문화연구소 정재상 소장(50·전 하동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은 지난 1993년부터 지역문화원 등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10여명 이상의 전복 출신 의병장 등 총 130여명의 항일의병장 등을 발굴해 정부로부터 정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한 인물이다.

정 소장은 이번에 발표한 문건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조선총독부 문서 '독도에 관한 편책' 전남경찰부장(지방청장)의 보고서(1908년)와 남원경무부서장(1907) 보고서 등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호남출신 항일투사 36명에 관한 인적사항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이 정부에 서훈한 이평국 3부자 등은 구한말 을사늑약(1905



경남 하동군 현대마을 전경.

년) 이후 지리산 일대에서 의병대를 지휘하면서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문건에는 출신지 별 주소와 성명, 나이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문건에 의하면 남원시 주전면 출신 이평국 의병장과 아들 형제(당시 30세, 27세) 그리고 남원시 이실리 임기주(35) 임영주(25) 형제 등 호남출신 36인은 지리산 일대에서 항일투쟁에 참여 했다.

특히 이평국 의병장은 강사과(입실), 고광순(담양) 고광문 형제 등과 함께 1907년 2월 남원일대에서 의병봉기 후 300여 명과 함께 항일투쟁을 펼쳤지만 상황이 여의지 않자 의병진을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 등으로 이동 일제와 맞섰다. 이 의병장은 이어 같은 해 11월 부대를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효대마을 인근으로 이동 매일 항전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일제 치하에 있던 구례·곡성경찰서와 하동군청, 그리고 우편취급소 및 일본군 수비대 본거지 등을 습격하며 일제에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을 분석한 정 소장은 "일본경찰 보고서에는 이평국이 1907년 2월 남원에서 의병봉기 후 전남 곡성 등지에서 활동 중이라는 수차례에 걸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이후 행적은 사라졌다"면서 "하지만 1년 후 1908년 12월 보고서에는 이평국 아들 형제가 곡성출신 의병장 노인

선의 부하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소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평국 의병장은 1908년 초 지리산 일대 어느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상 소장은 1993년부터 영·호남지역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신청을 통해 지금까지 130여명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았으며 2014년에는 영·호남출신 항일투사 28명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는 데 기여했다.

정소장은 이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훈훈장훈장과 하동군민상 KNN(SBS)방송 문화대상,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등을 수상했다.

한편 정 소장이 발표한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남원 출신 항일의병장 등 13인 명부(주소는 당시 원적지임)는 다음과 같다.

- ▲이평국과 아들형제(남원군 주전면·30/·27), ▲임영주(남원군 이실리·25), 임기주(남원군 이실리·35), ▲주화수(남원군 주이목리·30), ▲김○○(남원군 두동면·30), ▲하○○(남원군 두동면·30), ▲김○○(남원군 오수리·25), ▲윤○○(남원군 일평리·30), ▲박○○(남원군 도구리·27), ▲김해수(남원군 평포리·35), ▲김문삼(주소불상·40)

/고민형기자

전주시, 봄철 미세먼지 대책 추진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전주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2~5월)을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별 대응절차와 조치방법 등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단계별(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해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교육청, 인근 시·군 등 유관기관별 업무와 역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지난해 황사일수가 전년보다 50% 증가한 12일로 조사됐으며 환경기준 초과 5회 주의보, 경보단계 빈도가 증가하는 등 대기환

경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 및 폐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단계별(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해제) 대응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올해 미세먼지 측정장비 2대를 보강해 총 8대의 측정장비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변화율에 의거할 예정이다. 또, 대기질이 집중적으로 악화되는 봄철(2~5월) 건조기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 경보발령을 도로변 전광판과 SMS전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김영재기자

농가 침입 퇴직금 든 배낭 흠친 50대 '덜미'

귀농한 주민의 집에 침입해 퇴직금 이 든 배낭을 통째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25일 농가에 들어가 수백만원이 든 배낭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40분경 진안군 부귀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56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6매 등이 든 A(68)씨의 배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귀농한 A씨는 진안의 친척집에서 머무르던 중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배낭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영기자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 개소

100억원 규모 국책연구 총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고명환 교수)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갖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의료기기개발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센터로 중심으로 의료기기 개발 역량과 인프라구축을 선도, 보건복지부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의료기기개발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의

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에 선정됐다.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제조업체와 임상전문가와와 상시적인 연계협력 연구 기반을 구축, 전문연구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료기기개발 허브 구축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임상적 효과 입증과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상용화 및 사업화 판매 후 제품 개선 등에 이르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군산해경, 면세유 불법 유통 판매 일당 검거

탈색 후 전주·김제 등 13만6천리터 2억원 달해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이 풀이될 않고 있는 가운데 수협으로부터 타낸 면세유를 수집·운반·정제·유통까지 조직적으로 처리해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2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소형 선외기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수협으로부터 공급 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수집상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이를 정제시켜 전북도내 일부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수집 총액 A씨(남·46)를 구속하고 운반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소재 가건물에 정제시설과 지하에 대형 유통저장 탱

크를 갖춰놓고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타낸 면세유를 사들여 탈색시킨 후 전주와 김제 등에 판매해 왔다.

해경은 지난 19일 면세유를 수집하고 정제·운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이들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들이 7개월에 걸쳐 수집·판매한 면세유는 약 13만6천리터, 판매금액은 2억원에 달하며관련자 조사가 진행될수록 면세유 불법유통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산해경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판매주유소 및 정제창고, 피의자 자택, 해당 수협도 압수수색을 벌여 여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은 건전한 국가재정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다"며 "근

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상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사우나 휴게실서 여성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자법 형사2단독은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중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 한 사우나 2층 공동 휴게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A씨(54·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불법 의료기관 설립 요양급여 부정 수급

전주자법 형사2단독은 25일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산기사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김제시의 한 건물에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이듬해 10월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합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 이사 3명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한 혐의로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국립승리사범대학 전주캠퍼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